

##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 비교<sup>1)</sup>

김 기 민(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요 약>

---

덕의 윤리학의 대표자인 Aristoteles와 의무 윤리학의 대표자인 Kant의 도덕교육론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Aristoteles가 ‘목적론적’으로 도덕적 삶을 정당화한 반면, Kant는 ‘내재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Aristoteles에 의하면, 도덕교육이란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실천과 습관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지적인 것과 별 관련이 없다. 이에 반해 Kant에 의하면, 도덕교육은 자신의 행위규칙을 음미하고 보편적 도덕법칙에 의거해 정당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활동으로,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Aristoteles에 의하면, 도덕교육이란 ‘습관화’를 통하여 인간의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성격적 탁월성을 갖추게 하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특정 덕목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지 판단하는 ‘실천적 지혜’를 겸비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에 비해 Kant에 의하면, 도덕교육이란 특정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근거하고 있는 ‘행위규칙’을 중시하고, 이러한 행위규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천이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Aristoteles와 Kant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 인격의 형성, 좋은 습관의 형성 등이 도덕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Aristoteles, Kant, 정당화, 덕 있는 사람, 실천적 지혜, 실천이성, 습관화, 훈육

---

### I.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현대 윤리학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덕의 윤리학(virtue ethics)’과 ‘의무 윤리학(duty ethics)’, 이 두 이론을 드는 것에 별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최병태, 1996, pp. 153-169; 황경식, 2010, p. 15).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것은

---

1)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창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kmkim@changwon.ac.kr

바로 ‘현대 윤리학’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이란 윤리 또는 도덕, 덕, 선, 옳고 그름 등 윤리학의 주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력하는 메타 윤리학(meta ethics)을 제외한 윤리학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때 ‘윤리학’이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학의 근본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려는 윤리학, 즉 메타 윤리학이 아닌 규범 윤리학을 말한다. ‘현대 윤리학’이라고 할 때, 이때의 ‘윤리학’이 비록 메타 윤리학을 제외한 규범 윤리학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 질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현대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현대 윤리학’이라고 해서 결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 윤리학을 대표하는 한 가지 이론인 덕의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보다는 인간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으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또는 착한 사람인가, 어떤 성품을 갖추었을 때 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을 탐구하는 윤리학이다(MacIntyre, 1992; 장동익, 2010). 행위와 성품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착한 사람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 같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윤리적 관점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덕의 윤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시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각자 다른 삶의 맥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요구되는 덕목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덕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이때 판단이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특정 덕목을 잘 실현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덕의 윤리학적 입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 보통 사람들에 비교적 친숙한 관점으로 알려져 있다. 덕의 윤리학의 대표자로 흔히 고대의 경우 Aristoteles를, 현대의 경우 Anscombe, MacIntyre, McDowell 등을 든다(Crisp, 1998).

이에 반해 현대 윤리학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론인 의무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품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으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며, 모든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는 윤리학이다(최병태, 1996; O'Neill, 1992). 의무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로 공공의 이익이나 행복이 얼마나 증진되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동기가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는지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한다. 의무 윤리학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에 비추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보편적 도덕 원리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의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는 ‘인식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에 옮기는 ‘선한 의지’야말로 도덕적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무 윤리학을 창시하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흔히 근대에 활동한 Kant를 든다(McNaughton, 1998).

이러한 각각의 특징을 가진 덕의 윤리학과 의무 윤리학이 현대 윤리학을 대표한다면, 이 두 윤리학은 도덕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가? 혹은 이 두 윤리학에 근거할 때, 도덕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도덕교육에 대한 관점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접근 또는 전통적, 근대적 접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덕목주의적 접근(virtue approach to moral education)과 합리주의적 접근(rational approach to moral education)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 Choi, 1992).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덕목주의적 접근은 덕의 윤리학 입장에서 도덕교육의 원리와 방식을 조언하는 관점이며, 합리주의적 접근은 의무 윤리학 입장에서 도덕교육의 원리와 방식을 조언하는 관점이다. 덕목주의적 접근에서는 품성의 함양, 구체적인 행동, 습관화, 실천적 판단 등을 강조하며, 합리주의적 접근에서는 규율의 이해, 도덕적 원리에 입각한 특정 행위의 정당화, 가치 또는 덕목의 갈등 사태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 등을 중시한다.

이렇게 덕의 윤리학과 의무 윤리학, 또는 도덕교육에 대한 덕목주의적 접근과 합리주의적 접근 간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들은 더러 있다(최병태, 1996, 3 장; Power, Higgins & Kohlberg, 1989; Rich, 1991; Steutel & Carr, 1999; Crittenden, 1999). 심지어는 Aristoteles의 윤리학과 Kant의 윤리학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다(Anscombe, 1958; Carr, 1991/1997, 4 장). 그렇지만 Aristoteles의 도덕교육론과 Kant의 도덕교육론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별로 없다. 그것은 아마 Aristoteles로 대표되는 덕의 윤리학과 Kant로 대표되는 의무 윤리학의 차이에 주목해보면, 또는 각각이 도덕교육에 적용된 덕목주의적 접근과 합리주의적 접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혹시 덕의 윤리학과 의무 윤리학의 현격한 차이 또는 이 두 윤리학이 도덕교육에 적용된 덕목주의적 접근과 합리주의적 접근의 심각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도덕교육에 대한 생각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두 사람은 도덕교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하였으며, 이들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상가들의 도덕교육론을 다룬 연구들은 그들의 세계관이나 교육관을 먼저 다루고, 이를 토대로 도덕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시사점들을 다룬다. 그러한 연구들은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논문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의 도덕교육론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적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의 도덕교육론을 탐구하려고 한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i) Aristoteles와 Kant는 각각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규정하며, 그 정당화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ii)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도덕교육으로 규정하며, 그렇게 규정된 도덕교육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iii) 이 두 사람은 도덕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개념으로 어떤 것들을 들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교육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나 원리들은 도덕적인 삶의 정당화 논리와 도덕교육의 개념과 범위 등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 II. 도덕적 삶 또는 행위의 정당화 방식<sup>2)</sup>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는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특정 사상가가 체계적인 도덕교육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보고 그 해답을 구해야 할 바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도덕교육에 대한 주장들이 분명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Aristoteles와 Kant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는가?

먼저 Aristoteles가 이 질문에 대해 내린 해답을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ergon) 중 하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인간이 살면서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목적은 행복(eudaimonia)이다. 건강, 부, 명예 등도 인간이 추구할만한 목적일 수 있지만, 최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들은 때로는 그 자체로서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고귀한, 다른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목적이며, 또 다른 어떤 목적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자족적인 성격을 띤다(Aristoteles, p. 1097).<sup>3)</sup>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최선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Aristoteles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2) 정당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김상섭 교수(2008)에게서 빌려 왔다. 김 교수는 도덕교육에서 권위와 권력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면서 Aristoteles와 Kant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의 II 장에서는 도덕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정당화보다는 왜 도덕적 삶이나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덕의 윤리학에서는 사람에, 의무윤리학에서는 행위에 각각 일차적 관심이 있기에 “도덕적 삶 또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의 논지는 김 교수의 논지와 개략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자세한 것은 김 교수의 논문을 참고할 것.

3) Aristoteles 저작들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Bekker 방식과 Zell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Aristoteles 저작들의 페이지는 Bekker 방식에 따른 것이다.

때(arete), 실현된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성 자체를 발휘하는 기능과 이성의 명령을 알아듣고 이에 복종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지적 탁월성이라고 하며, 이성의 명령을 수용하고 이를 실천에 잘 옮기는 것을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한다(Aristoteles, p. 1103a). 두 가지 탁월성 모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지적 탁월성이 성격적 탁월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지적 탁월성은 다른 인간의 도움이나 필요 없이 발휘할 수 있지만, 성격적 탁월성은 다른 인간들과 어울려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행복의 자족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적 탁월성이 성격적 탁월성보다 더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도덕적인 사람이란 덕 있는 사람을 말하며, 덕 있는 사람이란 절제나 용기와 같은 성격적 탁월성과 더불어 실천적 지혜라는 일종의 지적 탁월성을 겸비한 사람을 말한다(Aristoteles, p. 1144<sup>b</sup>).

결국 Aristoteles에 의하면,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적인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 삶의 최고선인 행복을 위해서이다. 도덕적 삶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 방식은 바로 Aristoteles 철학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 ‘목적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수단이며,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행복이라는 목적이 실현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목적론적’이란 표현에서 쉽게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도덕적 삶은 사는 것은 사유에 몰두하는 삶과 더불어 인간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인간 행복 그 자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Aristoteles, p. 1214).

Kant가 이 질문에 대해 내린 해답은 바로 도덕성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그 동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경향성으로 인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불우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경우,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자선을 베풀 수도 있고, 선량한 성품을 타고나 자선을 베푸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록 내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도 않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 수도 있다. 이 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 경우에만 도덕적 행위로 성립된다(Kant, IV, pp. 397-400).<sup>4)</sup> 자선을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행위이기는 하지만, 다른 목

4) Kant 저작들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베를린 학술원판과 Felix Meiner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베를린 학술원판에 따라 페이지를 제시하되,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논기’는 IV, ‘실천이성비판’은 V, ‘칸트의 교육학 강의’는 IX로 표시한다. 그것은 이 세 권의 책이 베를린 학술원판에서 각각 4권, 5권, 9권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을 위해서나 자연적인 성품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어도 Kant에 의하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동기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무에 일치된 행위일 뿐이다. 도덕적 행위란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유익하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의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Kant에 의하면, 타고난 기질이나 길러진 성품에 의해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선한 의지가 개입될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 점을 Kan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Kant, IV, p. 394).

흥분과 열정의 억제, 자제심, 냉철한 사려 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뿐 아니라, 인격의 내적 가치들 중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선언하기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찬양했다- 부족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선한 의지라는 근본 법칙들이 없다면 그 특성들은 아주 나쁘게 될 수 있으며, 악당은 그 냉철함 때문에 훨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냉철하지 않을 때보다 첫눈에 더욱 더 가증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자체로서 선하다. 그리고 선한 의지를 -성취나 목적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볼 때, 어떤 한 경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모든 경향성을 합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그 선한 의지가 실행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존경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 선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존경받아야 할” 선한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Kant에 의하면, 선한 의지는 우리 인간의 타고난 건전한 지성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이 다만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선한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인 범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인식능력인 순수이성과는 달리, 실천이성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행위로 가능하게 해주는 의지능력이다(Kant, V, pp. 10-15). 실천이성에 의해 파악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의 행위를 선택하여 행하라”와 같은 법칙을, 행위의 결과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선한 의지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행위를 담보한다(Kant, IV, p. 421; Kant, V, p. 55).

결국 Kant에 의하면,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비록 본인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직 선한 의지에 비추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칙으로 제시하는 셈인데, 그 자체로서 완결된 정당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Kant의 이러한 정당화 방식은 분명히 Aristoteles의 정당화 방식과 차이가 난다. 즉 Kant의 경우, 도덕적 행위는 다른 어떤 목적이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나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 즉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에 반해 Aristoteles의 경우, 도덕적 삶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기보다는 궁극적인 행복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성립되며, 이로 인해 정당화된다. Kant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는 인간을 가장 고결한 존재로 형성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Aristoteles에 있어서 도덕적 삶은 인간을 고결한 존재로 형성해주기는 하지만, 최고의 영역은 아니다. 도덕적 삶은 사변적 삶보다는 덜 고귀한 것이며, 행복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Aristoteles와 Kant 공히 도덕적인 것이 인간 삶을 고결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Aristoteles가 도덕적인 것을 인간 삶의 최고선인 행복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정당화하는 데 비해, Kant는 도덕적인 것을 인간 삶의 최고선 그 자체로서 정당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III. 도덕교육의 성격과 범위

Aristoteles에 있어서 도덕교육이란 덕 있는 사람을 형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Aristoteles는 덕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열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덕목들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즉 (i) 감정과 관련된 덕목으로, 용기, 절제, 온화 등 세 가지가 있다.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 절제는 즐거움과 고통, 온화는 노여움에 각각 관련된 덕목이다. (ii) 세상 사는 데 좋은 것과 관련된 덕목으로, 자유인다움, 통이 큼, 이름 없음, 포부가 큼 등 네 가지가 있다. 자유인다움은 보통 정도의 재물, 통이 큼은 많은 재물, 이름 없음은 보통의 명예, 포부가 큼은 높은 수준의 명예에 각각 관련된 덕목이다. (iii) 사회 속에서 남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와 관련된 덕목으로, 진정성, 재치, 친애 등 세 가지가 있다. 진정성은 진실, 재치는 놀이, 친애는 일상적 삶에 각각 관련된

덕목이다(Aristoteles, pp. 1107b -1108b).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덕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Aristoteles에 의하면, 덕 있는 사람이란, 앞서 말했다시피, 성격적 탁월성과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말한다. 성격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키는 품성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품성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구체적인 행위와 감정으로 표출된다. 실천적으로 지혜롭다는 것(phronesis)은 성격적 탁월성이 아니라 지적 탁월성 중 하나로서, 이론적 근거나 원리를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학문적 인식(episteme), 철학적 지혜(sophia), 직관적 지성(nou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도 아니며, 구체적인 결과나 작품을 산출하는 기술(techne)도 아니다. 실천적 지혜란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특정 덕목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현실적 능력을 말한다(Aristoteles, pp. 1139b -1140b).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이란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덕목과 관련된 행위를 하며, 관련된 적절한 정서를 가지며, 상황에 맞는 실천적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 즉 용기 있는 사람이란, (i) 전쟁이나 화재가 난 경우처럼 두려움과 대담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만용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닌 중용의 상태인 용기 있는 행위를 하며, (ii)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며, 비겁한 사람이나 행위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의 용기 있는 행위를 뿌듯해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용기 없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부끄러워하며, (iii) 상황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만용도 아니며 비겁함도 아닌,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위인지를 잘 판단해 내는 사람을 말한다(Aristoteles, pp. 1220a-1220b; Choi, 1992, pp. 62-71).

이러한 특징을 가진, 덕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도덕교육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도덕교육이 도덕적 지식을 알게 하거나 그 근거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주지주의적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덕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덕목이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들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덕 있는 사람은 상황에 관련된 행위를 하고, 감정을 느끼며,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행위하도록 하며, 적절한 감정을 가지도록 하며,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덕 있는 적절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도덕교육은 행위와 감정 그리고 판단을 두루두루 길러주는 것이다(최병태, 1996, 제 5 장). 그리하여 Aristoteles는 실제 덕 있는 사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록 교육적 원리로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습관화, 지행의 괴리를 초래하는 의지의 박약(아크라시아, akrasia), 순전히 도덕적인 측면보다 사려적인 측면의 고려, 실천적 지혜의 성격과 특징 등이 이에 해당된다(Aristoteles, *Ethica Nichomchea*, 2권, 6권, 7권; *Magna Moralis*, 1권 11장, 12장, 34장, 2권 6장, 10장; *Ethica Eudemia*, 1권 5장, 2권 2장, 5장 등).



둘째, 첫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도덕교육이 교과로서 조직되어 가르쳐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 ‘교과’란 인간의 정의적, 행동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여 지식을 조직화한 교육내용을 일컫는다. Aristoteles에 있어서 도덕적 지식의 추구나 이해가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Aristoteles는 이 점에 대해, “탁월성의 소유여부와 관련해서, 안다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거나 작은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Aristoteles, p. 1105b).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식의 추구나 이해와는 별 관련이 없으며, 덕 있는 사람도 도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과를 가르침으로써 길러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Aristoteles는 공교육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할 때도, 체력단련이나 음악교육 등은 다루지만,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Aristoteles, pp. 1337-1342). 결국 Aristoteles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지식의 조직체인 교과로서가 아니라 일상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도덕교육이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들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삶의 최고 목적인 행복은 성격적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을 발휘할 때 실현된다. 또한 성격적 탁월성은 지적 탁월성보다 탁월성의 수준에서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성격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덕 있는 사람을 기르는 도덕교육은 지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지식교육에 비하면 그 수준이 낮은 단계의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최병태, 1998). 그렇지만 도덕교육은 지식교육과 함께 인간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Kant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자연적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 교육이다. Kant는 교육을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연적 교육이란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것과 관계된 교육”을 말한다. 그리하여 자연적 교육에는 어린이를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양육, 기본적인 규율을 익히고 실천하는 훈육, 신체적 능력과 기능을 능숙하게 하는 단련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실천적 교육이란 “온전한 인격체 스스로가 자기의 생계와 삶을 꾸려갈 수 있으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 몫을 해냄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내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말한다(Kant, IX, p. 455). 대체로 자연적 교육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교육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i) 어린이로 하여금 실용성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능력, 지식, 기술 등에 숙달하도록 하는 교육, (ii) 세상 사는 데 도움 되는 인간관계나 처세 등 실용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iii) 어린이의 도덕성 또는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때때로 Kant는 이 중 세 번째 부분인 도덕교육만 실천적 교육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Kant는 “학생들의 도덕성 또는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도덕교육”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Kant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 규칙들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이 행위규칙들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어린이들의 도덕적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Kant, IX, p. 480). 어린이들이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 특성들이 요청되는가? Kant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특성이 요청된다(Kant, IX, pp. 481-485). 첫째, 복종심이다. 복종심은 부모나 교사라는 외부 권위에 대한 강제된 복종심과 자기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선택 의지가 명령하는 의무에 대한 자발적 복종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어린이들은 강제된 복종심에서 출발하여, 점점 성장하면서 자발적 복종심으로 나아가도록 세심하게 지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직성 또는 성실성이다. 정직성 또는 성실성은 어린이들이 종종 보여주는 거짓말들을 체벌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욕구를 외면하거나 충족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적절하게 길러질 수 있다. 셋째, 사교성 또는 사회성이다. 사교성 또는 사회성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홀로 남지 않고 다른 어린이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넷째, 밝고 넓은 마음이다. 밝고 넓은 마음은 학교를 비롯한 기존 제도들이 종래의 억압과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들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고 즐겁게 생활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잘 길러질 수 있다.

Kant의 도덕교육은 Aristoteles의 도덕교육과 비교해볼 때, 다음 세 가지 점 모두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첫째, Kant의 도덕교육에는 인지적 측면이 불박혀 있다는 점이다. Kant에 의하면, 어린이의 도덕성은 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남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행위규칙에 따라 행하고, 이를 습관화할 때 도덕성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밴 행위규칙들이 왜 정당한지를 인식하고 이를 말로써 명명백백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Kant, IX, pp. 479-480). 그러므로 어린이는 자기가 따라야 할 행위규칙이 무엇인지를 항상 의식하고, 나중에는 그러한 행위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지를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거하여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어린이의 도덕성이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Kant의 도덕교육은 Aristoteles의 도덕교육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도덕이 반드시 교과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로서 가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은 Kant의 도덕교육에 인지적 측면이 불박혀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Kant에 의하면, “도덕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도덕적 의무 개념으로부터 추론해내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Kant, IX, p. 475).” 도덕교육은 어린이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반드시 독립된 교과로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Kant는 이 점을 이렇게 말한다. “만일 어린이에게 도덕적 올바른 것과 도덕적 그릇을 가르치는 문답식 교과서가 이미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는 매일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어린이가 인간의

실천적 삶과 행위에 관계하는 정의(正義)에 대하여 또는 올바른 행위에 대하여 깨달음과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를 교육해야 한다(Kant, IX, p. 490).” 이 진술로 미루어 볼 때, Kant는 도덕을 교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점에서 또한 Kant는 Aristoteles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셋째, 도덕교육이 여러 종류의 교육들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교육이라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Kant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으로 나누며, 자연적 교육에는 양육, 훈육, 신체단련 등을, 실천적 교육에는 지식교육, 실용교육, 도덕교육 등을 들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제시된 순서대로, 즉 양육부터 시작하여 도덕교육으로 교육의 단계가 나아간다. 이 중 도덕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하여 오로지 선한 목적을 삶 속에서 지향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씨 또는 마음의 성향을 기르는 것(Kant, IX, p. 450)”이야말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은 Kant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지만, Aristoteles에 있어서는 지식교육보다는 덜 중요한 교육이다. 이 점에서도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드러난다.

#### IV. 도덕교육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그 교육적 시사

여기서는 두 사람이 제시한 도덕교육의 방법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철학자로서 사실 도덕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거나, 그 방법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두 사람이 도덕적 삶과 도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 개념들 중 몇 가지를 고찰하고, 그것들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몇 가지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즉 (i) 인간 행위와 행위규칙, (ii) 욕망의 조절과 억제, (iii) 실천적 지혜와 실천이성, (iv) 습관화와 훈육 등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들 개념의 쪽에서 전자는 Aristoteles가, 후자는 Kant가 각각 도덕성과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개념들이다.

##### 1. 인간 행위와 행위규칙

Aristoteles에 있어서 덕 있는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덕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덕 있는 행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덕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덕 있는 사람도 때로는 덕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

정 상황에서 요청되는 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부각될 경우이다. 만약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용감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더 위협받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감히 용감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그것은 이런 경우 용기라는 덕목의 발휘보다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가 더 요청되기 때문이다 (최병태, 1996, pp. 204-209).

또한 덕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덕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 특성인 불완전함에 근거한다. 사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용기가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용감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드물기는 하겠지만, 용기 있는 사람도 잘못된 판단이나 일시적 비겁함 등에 의해 용감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부끄러워하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덕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덕 있는 행위를 하지만, 항상 덕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덕 있는 사람도 때로 불가피하게 덕 있는 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덕 있는 사람이라면 덕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감정-부끄러움, 자책, 후회 등-을 가지게 마련이다. 덕 있는 행위를 하지도 않고 그에 상응하는 이러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Kant가 강조하는 바는 도덕적 행위 그 자체보다는 도덕적 행위규칙이다. 물론 거짓말하지 않는 행위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위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위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규칙이 없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기질상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든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서 거짓말하지 않기도 한다. Kant에 의하면, 이러한 동기에 입각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옳은 행위이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Kant, V, pp. 398-400). 즉 Kant는 인간 의무감에서 비롯된 동기 여부를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였느냐보다는 도덕적 행위를 하게끔 이끄는 행위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Kant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등과 같은 행위규칙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ant가 말하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너의 인간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간성까지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하라’ 등과 같이, 모든 도덕적 행위규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상으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모든 행위규칙을 담을 수 있는 법칙을 말한다(Kant, V, p. 421, p. 429; IV, p. 55, p. 156).

Aristoteles가 행위를, Kant가 행위규칙을 각각 강조하였다는 것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Aristoteles의 경우, 덕 있는 사람이라면 덕 있는 행위를 하며,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덕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능하다(Aristoteles, p. 1103b). 그러므로 덕 있는 행위란 덕 있는 사람을 길러내려는 도덕교육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자, 도덕교육의 결과 성취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덕 있는 사람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덕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덕 있는 사람은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함으로써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 덕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성격에 기인한 지를 검토할 수 있는 토대로서도 중요하다.

한편 Kant의 경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항상 도덕적 행위규칙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며, 도덕적 행위규칙이 항상 도덕적 고려에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위규칙이 확립되지 않고서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행위규칙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선천적인 특성이나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 확립된 것일 수도 있다. 행위규칙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감에서 확립되고, 그리하여 항상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해 정당화될 때 비로소 ‘도덕적’인 것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에서 도덕적 행위규칙은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행위를 규제하는 원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도덕법칙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 법칙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 2. 욕망의 조절과 억제

Aristoteles에 있어서 욕망(orexis)이란 욕정(epithymia), 기개(thymos), 바람(boulesis) 등을 포함하고, 인간 영혼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욕망은 육체적인 욕구나 추구를 의미하는 욕정, 순간적인 충동과 분노로 표출되는 기개, 생각을 동반한 원망으로서의 바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때로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의 영혼은 크게 이성이 없는 부분과 이성을 가진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성이 없는 부분 중 이성에 설복당하거나 저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부분이다. 욕망은 한편으로 이성이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성이 없는 부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성에 설복당하거나 저항한다는 점에서 이성을 가진 부분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의 욕망은 감정 그 자체도 아니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도 아니며, 다만 감정에 대한 태도로서 품성(hexis)에 속한다(Aristoteles, p.

1105b). 품성으로서의 욕망이 감정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태도를 취하면 성격적으로 탁월성을 갖추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성격적으로 탁월성이 결여된 것이다.

덕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격적 탁월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욕망의 조절이 반드시 요청된다. 욕망이 잘 조절되는 사람은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즐거움에 무심하지도 않는, 적절한 수준 즉 중용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절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제라는 덕목을 갖춘 사람이 있는 반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자제력이 없다(akrasia)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여 욕망에 이끌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무절제한 사람과 같지만, 적어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보다는 덜 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Aristoteles는 덕의 반대편에 있는 품성으로 악덕, 짐승 같은 특성, 자제력 없음 등 세 가지를 들고, 자제력 없음과 관련된 개념적, 현실적 문제들을 비교적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Aristoteles, pp. 1145a-1151a). 이것은 역설적으로, 욕망의 조절이 덕 있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Aristoteles가 욕망의 조절을 강조한 반면, Kant는 욕망의 억제를 강조하는데,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Kant, IX, pp. 486-487).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며 욕구와 욕망을 삼가라(sustine et abstine)는 경구는, 우리의 삶과 행위를 지혜롭게 그리고 절도 있게 꾸려나가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좋은 성격 또는 좋은 인격을 우리의 내부에 형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욕구와 욕망이 스며 있는 정서적 감정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욕망이 스며 있는 경향성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 욕구와 욕망이 스며 있는 마음의 경향성들이 욕구와 욕망이 스며 있는 정서적 감정들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향유할 수 없는 것 또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향유하지 않고 참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sustine라는 말은, 세상살이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며 어려움을 참는 습관을 붙이라는 명령을 뜻한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은 인간을 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실천이성에 근거한 선한 의지에 온전히 복종할 때 가능하다. Kant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Kant, IX, p. 492).

한편으로 인간은 자기의 내면성 속에 모든 종류의 악으로 쏠리는 마음의 경향성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악의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본능적 욕구와 욕망을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향으로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따르는 자기 규제의 삶과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된다. 물론 인간을 악의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본능적 욕구와 욕망이, 인간의 삶과 행위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 곧 인간이 본능적 욕구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인간은 도덕적 죄과를 저지르지 않는 삶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Aristoteles가 욕망의 조절을, Kant가 욕망의 억제를 각각 강조하였다는 것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Aristoteles의 경우,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욕망의 조절이란 결국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절제라는 중용을 지켜내는 성격적 탁월성으로 귀결된다.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절제있는 사람이거나 자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는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욕망 자체가 아예 순치된, 절제있는 사람보다 도덕적 탁월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반면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절제하거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절제의 미덕을 알지만, 의지의 박약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점에서, 절제 자체의 미덕을 알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보다 도덕적 탁월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목격하고 있는 도덕적 지와 행의 괴리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즉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지와 행 사이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은 욕망을 가지게 하고, 나쁜 욕망을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욕망의 조절이며, 욕망의 조절을 통하여 도덕적 지와 행의 괴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최병태, 1996, 4장).

Kant의 경우,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인격의 중요한 요체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본능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욕망들 중에는 후천적인 학습이나 단련으로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욕망은 본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Kant는 금욕주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욕망의 억제는 실천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선한 의지에 의존할 때 가능해진다(신황규, 2003, p. 205).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도덕적 삶에 부적절하며 별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대체로 억제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도덕적 지와 행의 괴리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비록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도덕적 지의 확실성 문제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즉 도덕적 지와 행의 괴리는 오직 피상적으로 볼 때 존재할 뿐이며, 우리가 도덕적 지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 도덕적 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이다. 결국 도덕적 행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순전히 도덕적 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도덕적 지와 행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과제로, 순전히 선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도덕적 지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지적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다.

### 3. 실천적 지혜와 실천이성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Aristoteles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실천적 지혜는 학문적 인식, 철학적 지혜, 직관적 지성, 기술 등과 함께 지적 탁월성 중 하나로서, 덕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덕 있는 사람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을 취하는 성격적 탁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덕 있는 사람은 성격적 탁월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실천적 지혜를 겸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실천적 지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특정 덕목을 제대로 실현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실제적 능력을 말한다.

실천적 지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Aristoteles, pp. 1141b-1144a, pp. 1196b-1198b). (i) 실천적 지혜는 삶의 어떤 영역 전체에 관여하거나 혹은 특정 상황에서 발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이기도 하며 개별적이기도 하다. (ii) 실천적 지혜는 자기 자신, 가정경제, 정치체제 등 그 적용되는 영역에 의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치체제에 대한 실천적 지혜는 총체적인 것에 대한 입법술과 개별적인 것에 대한 정치술, 그리고 정치술은 또한 심의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각각 구분된다. (iii) 개별적인 것에 관여하는 실천적 지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행위의 목적에 관여하는 탐구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수단을 ‘잘 숙고해’ 내는 것을 말한다. (iv) 실천적 지혜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연륜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기에, 세상살이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젊은 사람의 경우,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천이성은 Kant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실천이성은 순수이성에 대비되는 것으로, 순수이성이 인간 인식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선험적으로(transcendental) 탐구하는 이성이라면, 실천이성은 인간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념과 법칙을 선험적으로 탐구하는 이성을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행위는 실천이성에 근거한 선한



의지에 의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의무감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때 온전히 도덕적인 것으로 성립된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은 의무감에 의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규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Kant, IV, pp. 412-413).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올바른 행위규칙들의 적절성과 정당성이 실천이성에 의해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근거하여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을 돕는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완전히 올바른 행위로 성립된다(Kant, IV, pp. 439-440). 즉 (i) 남을 돕는 행위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남을 도와야 한다'는 행위규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야 한다. (ii) 이러한 행위규칙이 스스로의 즐거움이나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iii)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갖추어야 한다가보다는 성장 발달하면서 점점 더 완벽하게 갖추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ristoteles가 실천적 지혜를, Kant가 실천이성을 각각 강조하였다는 것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Aristoteles의 경우, 덕 있는 사람은 성격적 탁월성에 실천적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실천적 지혜를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 실천적 지혜는 그야말로 실천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식이나 이론으로 길러질 수 없다. 덕의 완성에 요청되는 실천적 지혜는 성격상 개별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오랜 경험의 결과로 획득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를 기르려면 오랜 시간과 연륜이 필요하다. 실천적 지혜의 획득은 Dewey의 '행함으로써 배움(learning by doing)'을 연상시킬 만큼, 구체저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Dewey, 1916/2007, 11장).

Kant의 경우,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행위규칙에 따라 행위를 하며, 그러한 행위의 동기는 순전한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규칙들이 왜 옳은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i)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규칙에 따라 행위를 하며, (ii) 그러한 행위규칙들이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며, (iii)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위규칙들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 물론 이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가 실천이성을 온전히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 4. 습관화와 훈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Aristoteles에 의하면, 인간의 탁월성은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적 탁월성은 주로 가르침에 의해 가능하지만,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화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습관화는 성격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실천적 지혜를 갖춘 덕 있는 사람의 육성이라는 Aristoteles의 도덕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격적 탁월성의 습관화’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i) 인간 본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의 성격적 탁월성이란 본성적으로 자연히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본성에 반해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탁월성은 잠재가능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나 습관화를 통해 완성된다. (ii) 성격적 탁월성의 획득은 관련 행위를 해봄으로써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절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절제 있는 사람이 하듯이, 절제 있는 행위를 해보아야 한다. 이 점은 집짓기나 악기연주와 같은 기예의 획득에서도 그러하다. (iii) 습관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으로, 예를 들면 “절제라는 덕목을 아직 갖추지 않은 어린이가 절제를 갖춘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데 작용하는 요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행위자 자신의 가상적 시도와 체험”과 “제도적 틀 속에서의 자기 확인” 등이나(김상섭, 2006), 또는 “상황을 읽고”, “자신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최병태, 1996, pp. 235-250).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그 요체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며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습관화의 기제(mechanism)도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부모를 비롯한 주위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든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든지, 적절한 보상과 처벌이 필요하다든지 등등의 일반적인 지침들은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습관화의 기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경험적 논의들은 진척된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v) 습관화를 통해 완성된 최상의 모습은 어쩌면 카스틸리오네(Castiglione)가 말한 스프레짜투라(sprezzatura: nonchalance) 즉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별 다른 고민없이 무심하게 행해도 덕 있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지’와 통한다고 하겠다. ‘스프레짜투라’는 서커스에서 곡예사가 무수한 연습 끝에 나중에는 무심하게 고난도의 곡예를 펼치는 그러한 경지를 말한다(Bantock, 1980, pp. 80-88).

Kant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훈육과 다르다. 훈육이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인 반면, 도덕교육은 올바른 행위규칙에 따라 행하고, 이를 보편적 도덕법칙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Kant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Kant, IX, p. 480).

어린이의 도덕성을 기르고 키우는 일은 훈육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어린이의 행위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훈육함으로써 어린이가 나쁜 습관을 붙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의 도덕성을 기르고 키움으로써 어린이의 사고능력과 사고방식을 기르고 키우고 형성할 수 있다. 어른들이 어린이의 도덕성을 기르고 키울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는 본능적 충동들에 따라서 행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행위규칙들에 따라서 행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훈육을 통하여 교육할 때, 어린이는 일정한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으나, 이 습관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된다. 어린이는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규칙들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이 행위규칙들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Kant가 말한 훈육은 좋은 행위를 하는 습관을 붙여준다는 점에서 Aristoteles가 말한 습관화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Kant는 훈육을 통해서 도덕성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훈육은 도덕성 형성을 위한 이전 단계의 교육 즉 자연적 교육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습관화는 Aristoteles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격적 탁월성을 형성하는 도덕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반면, 훈육은 Kant에게 있어서 최상의 교육인 도덕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쳐야 할,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V. 나오며

Aristoteles와 Kant는 각각 고대와 근세를 대표하는 탁월한 철학자들 중 한 명인 동시에, 각자가 제시한 윤리학은 ‘덕의 윤리학’과 ‘의무 윤리학’으로 윤리학계에 쌍벽을 이루고 있다. 덕의 윤리학과 의무윤리학은 윤리학 이론으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 윤리학의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인 덕목주의와 합리주의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Aristoteles와 Kant가 제시한 도덕교육론도 과연 그러한가?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제시한 도덕교육론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은 (i) 도덕적 삶 또는 행위의 정당화, (ii) 도덕교육의 성격과 범위, (iii) 도덕교육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그 교육적 시사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에는 서로 화해할만한 공통점은 없는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두 사람의 도덕

교육론은 상당 부분 화해할만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두 사람이 공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도덕성의 궁극적 원천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Aristoteles는 실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상응하는 중용의 덕목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덕있는 사람의 근본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Aristoteles에 의하면, 덕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 외에 그와 관련된 적절한 감정과 실천적 지혜를 겸비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또한 Kant도 비록 행위의 순수한 동기, 행위규칙에 대한 이해, 보편적 도덕법칙에 입각한 정당화 등을 강조하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도덕성의 기초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사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도덕성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상식이다. 이 점에서, Aristoteles와 Kant는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둘째, 두 사람이 공히 도덕교육을 인격의 형성에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Aristoteles는 덕의 윤리학의 제창자답게, 기본적으로 특정 행위의 도덕성보다 한 인간의 특성 또는 인격 전체의 도덕성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Aristoteles에 의하면, 도덕교육이란 덕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Aristoteles의 도덕교육을 ‘인격의 형성에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해도 별 무리는 없다. Kant는 의무윤리학의 제창자로서 윤리학적으로는 ‘행위의 도덕성’에 일차적 관심을 가졌지만, 교육적으로는 ‘인격의 형성’에 일차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Kant에 의하면, “도덕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어린이의 인격을 확고하게 형성하는 일”이다(Kant, IX, p. 481). 즉 Kant의 도덕교육론은 그의 윤리학적 관점과는 달리 인격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에서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두 사람이 공히 훌륭한 도덕성의 기초로서 좋은 습관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Aristoteles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습관화가 성격적 탁월성을 기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Aristoteles, pp. 1098b-1099b). 물론 덕 있는 사람은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 성격적 탁월성에 경험과 연륜에 의해 획득된 실천적 지혜가 합쳐질 때 비로소 성립한다. 그렇지만 도덕성의 형성 또는 발달에서 실천적 지혜는 나중이며, 성격적 탁월성이 먼저이므로, 습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Kant도 좋은 습관의 형성이라는 훈육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Kant가 비록 훈육을 도덕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인격 형성의 기초 단계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Kant, IX, p. 483). Aristoteles와 Kant는 ‘좋은 습관의 형성’이 도덕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좋은 습관의 형성이 도덕교육의 기초로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은 한편으로는 각각이 근거한 윤리학적 관점의 차이만큼 첨예한 대립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들은 도덕교육에 관한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대체로 통한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공통점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충분히 드러났듯이, Aristoteles와 Kant의 도덕교육론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이 두 사람의 도덕교육론을 시론적이며 개괄적으로 고찰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도덕교육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고 엄밀한 논의와 비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상섭(2008). 도덕교육에 있어서 권위와 권력의 정당화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정당화 모델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20(1), 1-26.
- 김상섭(2006).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습관화로서의 도덕교육. *교육철학 제 36 집*, 7-25.
- 백종현 역(2009). *실천이성 비판*. 서울: 아카넷. Kant, I.(1788).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 손봉호· 김해성 역(1997). *인성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Carr, D.(1991). *Educating the virtues: An essay on the philosophical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신황규(2003). 칸트의 도덕교육론. *윤리교육연구 제 3 집*, 193-213.
- 이원봉 역(2002).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서울: 책세상. Kant, I.(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 이흥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Y.: The Macmillan Company.
- 장동익(2010).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년 봄 학술대회 *덕: 삶의 맥락으로부터*, 17-29. 5월 27일. 김해: 인제대학교 본관.
- 조관성 역주(2007). *칸트의 교육학 강의*. 서울: 철학과 현실사. Kant, I.(1803) *Kants Vorlesung über Pädagogik*.
- 천병희 역(2009).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고양: 도서출판 숲. Aristoteles. *Politika*.
- 최병태(1996). *덕과 규범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최병태(1998).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사상. 서울대 교육연구소(편). *교육학 대백과사전 제 2 권*, 1806-1811.
- 황경식(2010).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년 봄 학술대회 *덕: 삶의 맥락으로부터*, 1-15. 5월 27일. 김해: 인제대학교 본관.
- Anscombe, G. E. M(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Vol. 33, 1-19.
- Bantock, G. H.(1980). *Studies in the history of educational theory*. Vol. I.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hoi, Byoung-Tae(1992). *Moral education as the cultivation of virt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Crisp, R.(1998). Virtue ethics. Craig, E.(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IX*, 622-626.
- Crittenden, P.(1999). Justice, care and other virtues: A critique of Kohlberg's theory of moral development. Carr, D., Steutel, J. W. & Steutel, J.(eds.). *Virtue ethics and moral education*. London: RKP. 169-183.
- MacIntyre, A.(1992). Virtue ethics. Becker, R. C. & Becker, C. B.(eds.). *Encyclopedia of Ethics. Vol. II*, 1276-1282.
- McNaughton, D.(1998). Deontological ethics. Craig, E.(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II*, 890-892.
- O'Neill, O.(1992). Duty and obligation. Becker, R. C. & Becker, C. B.(eds.). *Encyclopedia of Ethics. Vol. I*, 273-278.
- Power, F. C., Higgins, A. & Kohlberg, L.(1989).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 Rich, J. M.(1991). The conflict of moral education: Teaching principles or virtues?. *The Clearing House, Vol. 64, No. 5*, 293-296.
- Solomon, J. trans.(1915). *Ethica Eudem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ristoteles. *Ethica Eudemia*.
- St. Stock, G. trans.(1915). *Magna Moral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ristoteles. *Magna Moralia*.
- Steutel, J. & Carr, D.(1999). Virtue ethics and the virtu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Carr, D., Steutel, J. W. & Steutel, J.(eds.). *Virtue ethics and moral education*. London: RKP. 3-18.

· 논문접수 : 2010년 12월 23일/ 수정본 접수 : 2011년 3월 8일/ 게재승인 : 2011년 3월 11일

## ABSTRACT

### A Theoretical Comparison of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between Aristotle and Kant

Kim, Ki Min(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and compare some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between Aristotle and K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i) the justification of moral life or deed: Aristotle's justification may be defined as teleological in which happiness as the ultimate end of human beings consists of morality and intellect. Whereas Kant's justification may be defined as intrinsic in which morality is the highest value human beings ought to pursue by their own duty. (ii) the nature and realms of moral education: In Aristotle, morality or virtue consists in the integration of conduct, emotion and practical wisdom, so the nature of moral education is holistic or ubiquitous. Whereas in Kant, morality consists in the motive to right action, i. e. good will, and consists of the developmental combination of right action rules and universal moral principles, so a part of moral education is intellectual. (iii) the key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s to moral education: In Aristotle, both the habituation of good conduct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wisdom are critical of cultivating virtues which implies the control of desire. In Kant, the discipline of right actions is assumed to be the necessary step to proceed for morality which implies ascetic or stoic in essence. Moral person may reflect and justify his/her own action rules with recourse to universal moral principles by his/her practical reason.

However, Aristotle and Kant seem to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priority of doing rather than knowing in morality, the emphasis of character formation in moral education, and good habit as the required step or primary basis of moral development.

Key Words: Aristotle, Kant, justification, virtue, practical wisdom, practical reason, habituation, discipline